



김성 장흥군수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문화예술행정 부문 쾌거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2023년 서울평화문화대상 문화예술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 도민일보, 서울매일, 시사통신이 주관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여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선도자들을 널리 알리고 그로써 사회 발전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 문화예술관광 트레상스 원년'과 '대한민국 통일 시작의 땅 장흥'을 선봉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구축, 문

림의향의 고장인 장흥의 일을 이어가기 위한 제1회 장흥문화제 개최, 전국 유일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에 역사 추모관 설립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문화예술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 군수는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개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장흥의 발전 원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 군수는 "올해를 문화예술관광 트레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땀 흘린 성과를 인정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문화 다양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 신광면 '새빛행복센터' 건립

문화·복지·행정 서비스... 주민 사랑방 역할 기대



함평군 신광면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새빛행복센터' 및 '새빛행복'이 건립됐다.

19일 함평군은 "신광면 새빛행복센터 및 새빛행복복합 준공 기념 새빛어울림 행사가 지난 1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위원장,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이남울 신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새빛행복센터 1층에는 신광면사무소, 2층에는 동아리실 등 문화센터가 조성돼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모임의 장소가 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광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생활이 향상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담양,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 확대

민선 8기 핵심 공약 '잘 사는 부자농촌' 발맞춰 사업 대상 확대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서 축사·원예단지 등 대상 넓혀 농가 호응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모두가 잘 사는 부자농촌'으로 가기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담양군은 군민들의 정보 이용환경 확대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확충하는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수요가 적어 초고속망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주민의 디지털 보편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 소

외지역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 군정 방향인 '잘 사는 부자농촌'에 발맞춰 지능형 농업 확산의 필수 요건인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대규모 축사나 원예단지 등으로 확대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을 통해 총 22곳이 혜택을 받았으며, 한우 사육 농가 A씨는 "인터넷이 안 돼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제 CCTV를 통해 농장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어 한결 편리해졌다"라며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병노 군수는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확대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전통식품 산업 육성 지원 '팔 걷었다'

8억 3000만 원 투입...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이 폭넓은 전통식품 산업 육성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도비 포함 총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소비 활성화도 촉진한다.

앞선 14일에는 장성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청산녹수'에서 생산 시연회를 열어 전통주의 우수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장성군의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탁주, 약주, 청주, 소주 제조시설을 구축한 '청산녹수'는 우리 술의 명품화, 현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지역 업체다. 전통주 생산과 관광, 체험을 접목한 외연 확장에도 앞장서는

중이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이래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장성군의 지원이 성과로 나타난 사례는 더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새벽밥'도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장비를 지원받아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 내 또 다른 김치 업체인 옐로우푸들도 시설 지원을 받았다.

장성군은 추후 유산균을 활용한 전통주와 쌀과자, 신제품 떡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쌀 소비 확대와 신 소비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전통식품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농업인과 지역민,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특화작목 육성지원

예비 사업자 신청·접수

화순군은 화순군 생육환경에 적합한 재배작물을 선정해 규모화 및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자 실시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대해 2024년에도 ▲샤인머스켓 ▲봉 ▲복숭아 ▲토마토 ▲블루베리를 육성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12월 15일까지 받는다.

2024년 사업에 대해 5가지 품목 지원 사항을 확정하기 전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샤인머스켓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기반인 10ha를 목표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목표인 10ha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대 시설을 우선으로 50%를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봉은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 농자재를 군 60%, 농협 10%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토마토는 공동선별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자재의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응한 필수재인 종자와 양액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복숭아, 블루베리는 과수산업 발전 계획 참여 농가 및 시설 블루베리 농가에 지원하여 노후화 및 품질이 떨어진 과목을 갱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종갱신에 70%를 보조하고, 지주시설 등 부대 시설은 50%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주영현 기자

영광 '내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스마트 공정육묘장 설치... 육묘 보급 기반조성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전국 20개소가 신청하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영광군은 대파 등 원예작물 모종증식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한 스마트 공정육묘장 설치 계획으로 공모하여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

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파 육묘장 3,258㎡를 조성하고, 스마트과종기와 AI온반로봇 등을 갖춘 계획이다.

대파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 종자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280만 본의 대파묘를 생산하여, 종자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과속채소연구소의 국산 대파 품종에 대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받아, 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 국산 대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영광군은 대파 재배면적 370ha 생산량 1만 1천 톤으로 전국 3위의 대파 주산지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대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 2회 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